



# 20

## 시대를 초월한 미학, 와비사비 랩 디자인 페어



불완전한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본 전통 미학 '와비사비'의 개념이 프랑스에서 디자인 페어로 태어났다. 와비사비를 일회적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을 필두로 한 디자인 실험 집단 '와비사비 랩'을 설립한 대목이 흥미롭다. 동남아시아의 골동품을 취급하는 브랜드 '아트모스페르 다외르Atmosphère d'Ailleurs'의 창립자 티에리 그린망Thierry Grundman과 파리의 유명 편집숍 메르시Merci의 디렉터 출신인 다니엘 로젠슈트로크Daniel Rozensztrach가 의기투합해 만든 와비사비 랩은 미니멀리즘 감각에 기인해 소비문화로 전락한 와비사비 정신을 회복하고 본연의 물성에 집중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행사는 파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도메인 드 퀴캤푸아에서 열렸다. 17세기에 지은 베르사유 앙립 저택을 티에리 그린이 인수해 19년간 골동품 쇼룸으로 사용했는데, 이번 행사를 위해 새롭게

개방했다. 행사에는 약 40팀의 갤러리, 공예가, 디자이너가 참여해 와비사비의 미학을 해석한 공예품과 골동품을 선보였다. 저택 내부 1500㎡에 달하는 공간을 가득 채운 자연 소재의 작품은 저마다 무상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트렌드에 집중하는 기존 디자인 페어와 달리 시대를 초월한 미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디자인 페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 양윤정 통신원 담당 김지아 기자

기획·주최 와비사비 랩  
큐레이터 티에리 그린이, 다니엘 로젠슈트로크  
웹사이트 wabisabilab.fr